

동해에 대한 단일, 이원 명칭체계 : 명칭 이슈를 넘어선 고려

Eric Casino (미국 하와이대 교수)

신명섭 (한국외국어대 교수)

지난번 6월 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cartography에 대한 접근이 역사적으로 볼 때 큰 두 줄기가 있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즉 대륙적 접근과 해양적 접근이었다. 동해 對 일본해의 호칭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선례나 기존 관례만으로서의 현안해결 가능성이 희박함을 아울러 지적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아래 세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1) 일본해(Sea of Japan)는 바뀌어야 할 것인가? (2) 당사국을 비롯한 인근 제국 및 국제적으로 용납될만한 명칭은 무엇인가? (3) 명칭을 바꾸는데 필요한 법적인 제도는 무엇인가?

당분간은 두 이름을 병용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그러면서 복합명칭 對 단일명칭 사용에 따르는 이슈와 역사적·정치적·법적인 영역이외의 측면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영역이외의 측면”을 타진해보자는 것이 역사적 연구를 외면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현안인 호칭문제를 두고 관련지역의 여러 국가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노력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값진 일이라고 생각된다. 보다 심도 높은 역사적 연구는 정치·경제계 지도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학문이 정치·경제 등 현실분야에 도움이 되고 반면에 후자는 학계에 협조를 제공하는 상호관계는 현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바람직스런 일이다. 다만 우리가 잘 인식하고 또 인식해야 할 것은 영토의 호칭문제를 둘러싼 다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슈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당사국 및 관련제국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타협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단일명칭보다 복합명칭, 즉 dual system이 최소한 당분간은 더 현실성을 지닌 대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침예한 대립보다는 다각적으로 복합요인을 고려하고 이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기한 3항목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 아울러 그 외의 요인을 단기·장기적 시각으로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